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미전도 종족 이웃에게
다가가는 복음

정헌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ession 7: 생활 속의 선교
Here & Now

contents

session 1: God's Kingdom	1
session 2: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	15
session 3: 세계관과 선교	32
Lecture on Worldviews and Mission by Paul S. Chung PhD.	
session 4: 먼저 친구 되기 Friendship First	40
session 5: Sponsorship & Partnership Together	54
session 6: Team Work & Leadership	69
session 7: 생활 속의 선교 Here & Now	87

Copyright ©2019 by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CMCA)

All Rights Reserved

만약 CMCA 모자이크 선교 (Mosaic Cultural Ministry)의 교재 및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연락처:

Rev. Lordwin Lim, Director

Email: namca.allnations@gmail.com

[session 7: 생활 속의 선교 Here & Now]



파송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한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나이 든 권사님이
“나는 선교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에요”라고 말하자 그 선교사님은
“권사님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시잖아요.
그러니 캄보디아에 오셔서 현지인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귀한 선교 사역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드렸다. 그러자
권사님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으로 오셔서 현지인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를 계기로 현지인이 식당을 차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자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것을 경험한 선교사님은 ‘수년간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의 김치 만드는 사역’을 통해서 하셨다고 겸손히 말씀하셨다.

이처럼 권사님이 머나먼 선교지 캄보디아에 가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귀한 선교 사역이 되었다면 우리 이웃으로 사는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도 주님께서 귀한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시리라 믿는다.

1.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1. 우리 생활 터전이 선교지이다

교회 사역을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선교사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 대다수 성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해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 다니며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일터 (marketplace)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을 부양할 수입과 더
나아가 해외 선교사를 후원할 선교비를 버는 기회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가?

Christopher J.N. Wright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 ‘공적 광장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표현을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또 한 가지 용어는 직장 (marketplace)이라는 의미를 그저 순전히 경제적, 재정적 구조로서의 시장 (the market)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적 프로젝트와 창조적 활동을 하면서 협력하는 세계 전체 - 일, 교역, 직업, 법, 산업, 농업, 공학, 교육, 의술, 대중매체, 정치와 정부, 심지어 레저, 스포츠, 오락까지 포함하는 - 를 말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성문’이었다. 성문은 모든 도시나 마을에 있는 공적 광장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 어떤 종류든 자신의 일을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참여의 세계로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하나님은 이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고 또한 감독하신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성소보다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아모스 5:12-15)

‘공적 광장’이라 말하든 구약에서 ‘성문’이라 말하든 이것은 평범한 우리들이 ‘매일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다. 존 스토틀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로 바울이 사용한 ‘디아코니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3:4-6에서 국가의 사역에 대해서 쓰면서 바울은 두 번이나 다른 곳에서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디아코니아’는 매우 다양한 사역을 포함하는 언어다. 입법자, 공무원, 행정 장관, 경찰, 사회사업가, 세무원 등으로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도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혹은 행정 담당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다. - 존 스토틀 -

바울이 사용한 ‘디아코니아’를 존 스토틀가 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사무원, 기술자, 학생, 가정주부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친구가 되는 것이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의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해외에 나간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로써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학교,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산다면 우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목사, 교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우리의 삶이 모자이크 선교 사역으로 사용되는데 제한받는 것은 없다

Christopher J.N. Wright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 요한삼서 6절 요한이 가이오와 그 교인들에게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전송하라’는 작별 인사 이상의 의미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프로페포’라는 동사는 신약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람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하는 전문 용어 (사도행전 15:3, 21:5, 로마서 15:24, 고린도전서 16:6, 10-11)라고 하면서 그것은 음식, 요금 또는 하룻밤 숙박비를 위한 돈, 안전을 위해 써주는 소개서나 추천서를 포함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나그네 된 자 즉 선교사에게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가 전송하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대하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하겠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관점이 이와 같다면 교회든, 선교단체든 타 문화권 선교 사역자를 파트너로 내보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해 오던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것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방식을 뛰어넘은 다양한 선교 사역

열두 사도의 일과 택함을 받은 일곱 사람의 일이 꼭 같이 ‘디아코니아’ 곧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 의도적이다. 전자는 ‘말씀의 사역’ 또는 목회적인 일이고 후자는 ‘먹이는 사역’ 또는 사회사업이다. 어떤 사역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와 반대로 둘 다 기독교 사역이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방식이다.

둘 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 다 전임 기독교 사역이 될 수 있다. 두 사역 간의 유일한 차이는 그 사역이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서로 다른 은사들과 서로 다른 부르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존 스토틀 -

그러므로 이를 모자이크 선교에 적용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공부, 설교, 방문 또는 노방 선교하는 것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함께 차를 마시며 친구가 되는 것, 렌트를 구해 주고 집 또는 교회를 관리해 주는 것, 아이를 돌봐주는 것, 언어나 요리를 가르치는 것,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것, 수업료 지원하는 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6:3) 하는 소중한 선교 사역이다.

3. 불신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먼저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시편 67:1) 아론의 축복(민수기 6:24-26)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미소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면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열방이 스스로 보지 않을까?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 활동,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않을까?...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도 작용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가?” 라고 신랄하게 묻는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얼굴빛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를 통해 그분께로 끌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 존 스토트 -

아내가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면 남편은 당연히 그 옷이 정말 멋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옷을 입은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멋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멋있다는 말이며 우리는 그 멋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것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끄는 것은 두 번째 것 (우리의 삶)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 HERE & NOW 선교

1. 모자이크 선교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들을 불러 우리 이웃이 되게 하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다.
- 타 문화권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일상의 삶 속에 포함하는 것이다.
- 타 문화권 이웃들의 필요를 동역자와 함께 지속해서 돌보는 것이다.
- 미전도 종족 성도들을 우리의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 모자이크 선교의 목표

교회 개척

- 타 문화권 미전도 종족 현황을 조사한다. (1과 Resources 참조)
- 교회 개척할 종족을 정하고 신실한 성도, 지도자를 찾아 관계를 맺는다
- 미전도 종족 안에 그들의 언어, 문화 안에서 교회 개척 비전을 나눈다.
- 교회 개척할 종족과 동역할 후원 교회를 서로 networking한다.
- 개척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지원한다

교육 훈련

- ALPHA 훈련
- 제자 훈련
- 리더십 훈련 - 성인, 청소년
- 개척 교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
-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 양육 훈련
- 모자이크 선교 세미나, 포럼



모자이크 선교 지도자 수양회를 마치고

선교사 파송

- 개척 교회 시작 초기부터 아래 선교 비전을 공유토록 한다
-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를 파송한다
- 그들 모국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다.
- 해외 선교를 위해 타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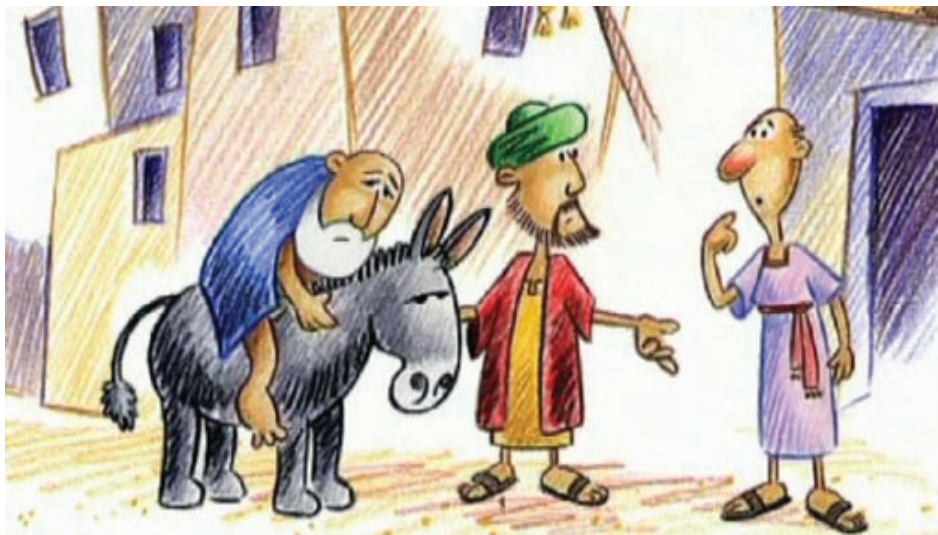
3.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 특징

매일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 매일 생활 속에서 사역한다: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적 사역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
- 전문성이 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섬기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속 타 문화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한다: 개인, 한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상호 보완하여 선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비유 : 롬12:1~8, 고전 12:1~31, 엡4:1~12

4. 모자이크 선교 대상



모자이크 선교는 우리가 영육 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25-37

‘율법 교사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신다.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신다.

26절: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그렇듯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정답을 말한다: 교리에 강한 모습

27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5)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18) 하였나이다

교리에 강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가 다시 묻는다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이란 같은
인종, 같은 계층, 수입, 심지어 신학적 입장까지 같은
사람 즉 ‘나 또는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 형상을 닮은
이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0:30-37에서
익명의 사람이 강도 만난 사건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다. 이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강조하신다. 즉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34)는 구약의 원리를
가르치신다.



이 비유에서 익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우월감에 가득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한 유대인의 인종, 문화적 우월감에 도전하는 인물이 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이 필요한 길가에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이 자기에게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36절에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고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푸자니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결론 (37절)을 내리신다.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우리도 그들이 나의 이웃인가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 간에 고난 당하고 도움을 필요로하는 타 문화권 사람들의 이웃인가 자문해야 한다.

사도행전 11:19-21: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5. 어떻게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로 동역할 수 있을까?

- 모자이크 선교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자이크 선교에 참여한다.
- 타 문화권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한다.
- 미전도 종족에 대해 농부, 부모의 마음을 품고 선교 사역에 동역한다.
-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 :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에 관심을 함께 갖는다.
 -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교회 개척, 교육 훈련 등에서 동역한다.
 - 간증을 준비하자. (3~5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등)
 - 사회 복지: 소외된 자의 육적 필요 (재정, 질병, 가정 문제 등)를 돕는다.
- 그들의 필요에 맞춰 자기 은사, 재능, 열정에 따라 섬긴다.
 - 필요에 맞춰 은사와 열정으로 어린이 학교, 시니어 학교, ESL, 축구, 찬양 사역 등으로 섬긴다.
 - 직장 / 일터 (교사, 음악, 운동, 그림, 목공, 변호사, 회계사, 상담가, 의사...)에서 하는 재능, 은사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문화권의 소외된 자를 위해 ‘모자이크 사랑 나눔’으로 섬길 수 있다.
(연간 전 세계 성도들 수입 34조 불의 0.1%만 해외 선교로 지출)
-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모자이크 장학금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 작은 일일지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하듯 하자.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께 하듯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해야 한다. 이처럼 주께 하듯 할 때 함께 차를 마시든, ride로 섬기든, 가르치든, 재정으로 돕든, 기도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 작은 것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 Mosaic Cultural Ministry -

- 깨닫고 아는 것 만큼 행하자.

많이 알아도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더 낫다.

- Spiritual Friend가 되자.

주변 (이웃, 직장, 고객 등)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 친구 또는 부모가 되자.

- Mosaic Cultural Ministry를 위한 동원 사역

- 교회와 친구들에게 모자이크 선교 비전을 나누며 사역자를 동원하자.

- 초대 교회에서 배우자 (사도행전 2:43-47):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와 같은 사역자를 동원하자.

- 조직의 사역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사역팀을 세우자.

- 99% 평신도를 깨워 타 문화권 사역자로 동원하자.

- 영향력과 잠재력이 큰 여성들을 사역자로 동원하자



모자이크 선교 동역자를 위한 기도

6. 모자이크 선교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 상식

- 타 문화권 소수 민족의 필요 (Needs)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Family doctor, Walk-in Clinic, OHIP 신청, Child Benefits,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곳을 알아둔다.
- 난민, 이민 등에 법적 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둔다.
- 어디에 Welfare Office가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두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가고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준다.
- Clothing and Food Bank의 위치와 근무 시간 등을 알아둔다.
- 언제 어디서 Job Fairs가 있는지 알아두고 job 신청을 도와준다.
- 영어를 못 해도 할 수 있는 Job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ESL programs에 대한 정보와 자체 ESL programs 을 준비한다.
- (Bilingual) Child care services와 (Bilingual) Medical services and social services가 가능한 곳을 알아두고 그들과 동행하여 도움을 제공하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한다.
- 저소득자를 위한 apt. 임대 자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두고 기다리는 동안에 'follow up' 하는 것을 도와준다.
- Management Office에서 소수 민족을 차별 없이 받아주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7.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실질적 필요

- 학교, 숙소 (정부 아파트 등),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임시로 잠자리나 거처를 제공한다. (교회 차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예: Adam House, Matthew House
- 그들의 식품을 살 곳과 필요한 물품이나 가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또는 교회 성도들의 사용 가능한 물품을 donation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Shopping하는 요령 - 그들의 식품을 살 수 있는 곳, Sale, 쿠폰 사용, garage sale 등 - 과 식품점, Drug Store, Dollar Store, Outlet, Mall 등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 나라에 따라 경찰과 보안 요원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는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 TTC, Parking Meter,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등 사용법을 알려 준다.
- 응급실, family doctor, 119, TV, 인터넷, Toll free,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 준다.
- 은행 계좌 개설, 전화, 전기 시설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 그들과 대화 (조국 생각, 필요, 두려움 등에 대해)를 많이 하여 친밀감을 증진 시킨다.
- 학교에서 Paper를 제출할 때 문법, 작성 요령 등에서 그들을 도와준다.
- 친구 (특히 Christian 친구)들을 소개한다.
- 친구의 모임, 교회 행사, 결혼식, 세례식, 영화 관람, 가족의 Picnic 등에 초청한다.
-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하여 재정을 모은다.
- 교회, 의사, 치과, social services, 공항까지 Ride 해 준다.
-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선생님과의 interview, 친구 사귀기, 학교 복장, 자녀들의 TV, Computer 사용 등...

8. 선교 대상인 타 문화권 소수 민족과 함께 하는 사역

- 단기 선교 Trainer / Facilitator로 타 문화권 소수 민족 교회 / 지도자를 초청한다.
- 단기 선교 다녀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선교적 삶을 살도록 타 문화권 소수 민족 교회와 동역한다.
- 안식년 등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그들을 섬기며 교제하도록 한다.
- 소수 민족 선교 대상 중에서 어려운 가족, 교회를 돕는다.
- 그들과 음식 나누기, 영화 감상, 야유회, 운동 경기 등을 함께 한다.
- 타 문화권 종족들의 행사에 참여하고 그들을 교회나 우리의 모임에 초청한다.
- 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관계가 친밀해져 갈 때 노인, 장애인, homeless people, 새 이민자를 위한 섬김 등을 함께 한다.
- 소수 민족 사역자를 우리 모임에 초청하여 설교, 또는 간증 등을 부탁한다.
- 타 문화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
- 타 문화권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들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한다.

9.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

- 미디어 (IT/컴퓨터), ESL, 스포츠, 의료 선교, 찬양, 금홀 사역, 건축, 수리 보수, 전기, 수도 배수, 목공…)
- 학교 (대학, 초, 중, 고등) 친구를 통한 Campus 선교
- 타 문화권 성인, 청소년 지도자 양육
- 타 문화권 가정 전도, Community 전도에서 함께 동역
- 종족별 집중해 사는 거주지, community, 상가, 음식점 등을 방문 기도
-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교제하며 그들의 언어 배우기
- Christmas, Easter, Thanksgiving Day, Picnic, 구정 등에 타 문화권 소수 민족 이웃을 초청하여 교제하기 - 교회에서 선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 교회, 성도, 신학생, 사역자, 어려운 소수 민족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기
- 타 문화권 소수민족 연합 전도 집회, 문화축제, 피크닉,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 타 문화권 어린이 캠프 및 청소년 Retreat 지원하기
- 타 문화권 교회들과 함께 연합 예배, 전도 집회, 문화 축제 개최하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선교도 여전히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섬김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자리와 선교에서 수난이 차지하는 자리는 오늘날 거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음 전도 또는 선교의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단 하나의 비밀은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려는 마음이다. 그것은 인기에 대한 죽음일 수도 있고 (인기 없는 성경의 복음을 충실히 전파함으로써), 또는 자존심에 대한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적, 국가적 편견에 대한 (다른 문화에 동일시됨으로써) 죽음일 수 있다. 하지만 열방에 빛을 가져오려면 종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며 씨는 여러 배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 존 스토틀 -

해외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고난이 있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로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와 우리 이웃으로 살게 하시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모자이크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존 스토틀가 지적하고 있듯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진리 즉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 (수난과 고난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7:9: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ی 궁극적이시기에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드릴 때 선교는 더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다. - 존 파이퍼-



CMCA 동역 교회들의 연합 예배

삶에서 적용하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한가지라도 오늘 실행하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던 수 많은 종족들을 불러와 나의 이웃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모자이크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자이크 선교 사역 관련 정보

CMCA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

- CMCA Web Site: www.cmcaallnations.org
- CMCA Facebook
- E-Mail Address: cmca.allnations@gmail.com
- Mobile: 416-886-9101
- Office: 416-497-2424

사역 관련 참고 Web site (1과 Resources참고)

- Statistics Canada
- Joshua Project - <https://joshuaproject.net>
- TIM Centre - www.ureachtoronto.com
- Open Doors - <http://www.opendoorsca.org>

CMCA Video



2015 CMCA 다민족 연합 예배 편집 영상 (3분)

<https://youtu.be/R7YS9UOhOqA>



2015 CMCA 다민족 문화 축제 영상 (3분)

<https://youtu.be/a6VB5VX1Gel>